

Deloitte.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금융산업연구소에서는 회계/감사 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Accounting & Audit Newsletter'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금융산업연구소 Newsletter

2022.01.31



임인년 - 새로운 도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2년이 시작되면서 회계기준관련 기관들의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연말에는 주로 1년간의 논의된 사항을 정리하여 발표하는 이벤트가 많았는데, 연초에는 올해 동안 주로 다루어야 하는 장/단기 과제들에 대한 계획 및 이슈를 제안하는 활동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딜로이트도 각종 의견요청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업계의 의견 및 정보이용자의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변함없이 회계관련 뉴스들을 정리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사전에 소식을 접해서 업무에 활용하실 수 있게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2021년 중 발표되거나 검토된 중요한 회계이슈를 요약한 'IFRS in Focus - Closing out 2021'을 포함하여 2개의 최신 IFRS in Focus 발간물을 별도로 첨부하여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딜로이트 안진 금융산업연구소 올림

Contents

Deloitte의 IASPLUS.com 주요 뉴스.....	4
금융감독원 회계포탈	9
PCAOB 주요 뉴스.....	11
주요 회계관련 뉴스 Link.....	12
Glossary	13



Deloitte

공시사항을 간소화하는 제안 '공적책임이 없는 종속기업: 공시'에 대해 의견서 제출

31 Jan 2022

딜로이트는 2021 년 7 월 IASB 가 발표한 공개초안 'Subsidiaries without Public Accountability: Disclosures 공적책임이 없는 종속기업: 공시'에 대해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발표된 [공개초안](#)에서는 종속회사가 요건을 만족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상대적으로 간소화된 사항만을 공시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딜로이트는 종속회사들이 동 기준서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이 기준서를 활용해서 재무제표작성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적책임이 없는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지분소유자 (의결권이 없는 주주, 자산관리자인 수탁업무담당자 등)의 동이가 추가적으로 있는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모회사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한정되어야 함에도 동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웹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Deloitte

'IFRS 9 실행 후 업계 의견 수렴 절차'에 대한 의견서 제출

28 Jan 2022

딜로이트는 2021 년 9 월시작된 'IFRS 9 분류와 측정 - 실행 후 업계 의견 수렴 절차(RFI)'에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딜로이트는 IASB 의 의도대로 분류와 측정 요구사항 관련 기준서가 실무에 정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2014 년 'IFRS 9: 분류와 측정'이 최초로 도입된 이후 변경되거나 발전된 대출관행을 고려한다면, 정보이용의 효율성을 증진하는 차원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웹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2022년 2월 IFRS 해석위원회 미팅안건](#)

21 / 26 Jan 2022

IFRS 해석위원회에서는 2022년 2월 1일 개최될 회의 안건을 게시했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다음 사항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 IAS 37 — Negative low emission vehicle credits (부의 저배출차량 관련 권리)
- IFRS 9 and IAS 20 — TLTRO III Transactions (Targeted Longer-Term Refinancing Operation, 장기대출프로그램 및 IAS 20 정부보조금관련 회계처리)
- IFRS 17 — Profit recognition for annuity contracts (보험계약의 선수수익 인식에 관한 이슈)
- Work in progress (기타 진행상황)

전체 어젠다 내용은 [웹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IASB 2022년 1월 사전미팅자료](#)

20 / 28 Jan 2022

IASB는 2022년 1월 25일 런던에서 미팅예정입니다.

사전미팅자료는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며, 주요 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 및 일관성있는 적용 (Maintenance and Consistent Application)

2021년 4월 IAS 21을 수정하는 관련 초안(ED/2022/4/ Lack of Exchangeability)을 발표했습니다. IASB 연구원들이 참여하여 가장 최근의 IFRS 해석위원회 미팅내용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동일지배하의 사업결합 (Business Combinations under Common Control)

IASB는 2020년 11월 동일지배하의 사업결합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했습니다. IASB 연구원들은 의견서와 관련하여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매수법 또는 장부가액법을 이용한 측정)

위원회 업무계획 보고 (Board work plan update)

각종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진행상황 및 추가/중단여부, 우선순위부여, 업무시기 등 전반적인 현황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주재무제표 (Primary Financial Statements)

IASB 연구원들이 MPM (Management performance measures) 관련 공시사항들의 필요성에 대해 IASB 위원회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MPM 내용이 재무제표 수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표시하는 방법 등을 포함하여 세금효과 및 비지배지분 표시방법 등도 논의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웹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ASAF 2021 년 ASAF 미팅 내용](#)

18 Jan 2022

ASAF 는 2021 년 12 월 9,10 양일간 회계기준자문포럼 미팅을 개최했습니다.

주요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형자산 (Intangibles) : ASAF 위원들은 EFRAG 이 제시한 무형자산정보 관련 discussion paper 내용에 대체로 동의하며, IASB 가 IAS38 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ISSB 와 함께 무형자산관련 정보 및 미래지속가능성관련 정보를 고려할 수 있도록 협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영업권과 손상 (Goodwill and impairment) : IFRS 3 사업결합의 공시요구사항에 대해 IASB 가 최근 논의한 내용의 진행상황을 논의하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Strategic / agenda consultations, Agenda planning and feedback from the previous ASAF meeting, disclosure initiative 등에 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요약본은 [IASB 의 웹사이트](#)를 참고해 주세요.



[EFRAG은 공급망금융\(supplier finance arrangements\)관련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함](#)

18 Jan 2022

EFRAG은 IASB에서 발표한 공급망금융관련 공개초안(IASB's Exposure Draft ED/2021/10 'Supplier Finance Arrangements')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공개초안](#)은 공시사항을 추가하여 회사들이 양질의 공급망금융관련 정보를 제시할 수 있는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EFRAG은 현재의 IFRS 기준과 정합성을 유지하는 프로젝트를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ED에서는 주재무제표에서의 분류 및 표시, 유동성위험 및 운전자본의 투명성 등 꼭 필요한 사항을 완벽히 만족시키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도자료](#) 및 [의견서 초안](#)을 참고해 주세요.



[중소기업회계기준 실행그룹\(SMEIG\) 미팅 안내](#)

12 Jan 2022

차기 SMEIG 미팅이 2022년 1월 21일 비디오 컨퍼런스로 개최되었습니다.

SMEIG

주요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IFRS 3에서 언급하는 '사업' 및 '다시 취득한 권리'의 정의
- IFRS 1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간편법
- 가상화폐
- 개발비의 측정과 인식
- 중소기업 IFRS와 관련된 IASB의 최근 의결사항

자세한 회의 내용은 [IASB 웹사이트](#)를 참고해 주세요.



[IFRS 해석위원회 토의내용 팟캐스트\(Podcast on IFRS Interpretations Committee developments\)](#)

10 Jan 2022

IASB 는 2021 년 4 분기 중 수행된 IFRS 해석위원회 토론 내용을 팟캐스트로 발표 했습니다.

주로 토의된 내용은 아래 사항 들입니다.

- (IFRS 16) 풍력발전소를 이용하여 얻게 되는 경제적 효익
- (IFRS 15) 본인과 대리인 관계
- (IAS 37) 부의 저배출차량 권리
- (IFRS 16) 판매후리스 관련 부채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IASB 의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IASB 가 'IFRS 기준에서 요구하는 공시사항 초안'에 대해서 의견서를 제출함](#)

06 Jan 2022

IASB 에서는 2021 년 3 월 공시요구사항에 대한 공개초안을 발표했습니다. (ED/2021/3 'Disclosure Requirements in IFRS Standards — A Pilot Approach' published in March 2021.)

ED 에서는 IFRS 13, IFRS 19 와 관련된 공시사항을 결정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딜로이트는 IASB 의 의견을 전반적으로 지지하며, 실무적으로 적용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웹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회계결산 및 외부감사 관련 유의사항 안내

31 Dec 2021

금융감독원은 2021년 결산을 앞두고 회사 및 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공시 및 기말 감사 시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회사는 자기책임 하에 재무제표 직접 작성 및 제출

- 회사는 직접 작성한 감사前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에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한 후 즉시 증선위에도 제출해야 함
 - (제출대상) 주권상장법인과 자산 1 천억원 이상 비상장법인은 물론 금융회사(상장 여부 및 자산규모 불문)도 제출대상임
 - (미제출 시 공시) 상장법인은 감사前 재무제표를 증선위·감사인에 기한 내 미제출 시 그 사유 등을 제출·공시해야 함
- (점검 결과)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법제화('13.12.30.) 이후 위반회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비상장법인의 경우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19년 크게 증가
 - 여전히 일부는 관련 법규 미숙지, 부주의 등으로 감사前 재무제표를 미제출·지연제출하여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부과받고 있으며, 상장법인의 감사前 재무제표의 기한 내 미제출 사유 제출의무 위반도 지속적으로 발생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준비 철저

- 상장회사는 '19회계연도부터 자산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받아야 하며, '21회계연도는 자산 5천억원 이상 상장회사가 적용 대상임
 -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요)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 할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를 의미
 - (감사의 의미)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운영이 효과적인지에 대해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며, 기존의 검토보다 강화된 절차 요구
 - (해외사례) '04 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 상장회사의 경우 '20 년 비적정의견 비율은 4.6% 수준

중점심사 회계이슈 확인 및 신중한 회계처리

- 금감원은 '21.6월 심사·감리사례 및 전문가 설문 등을 감안하여 '22년도 중점심사(테마심사) 대상 4가지 회계이슈(①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처리, ②특수관계자에 대한 수익인식, ③금융부채 인식 및 측정, ④영업이익 표시 및 영업부문 정보 공시)를 선정·예고
 - '21 회계연도 재무제표가 공시된 후 회계이슈별로 대상회사를 선정하여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할 예정

모든 상장회사로 확대된 핵심감사사항을 충실히 기재

- 상장회사 감사인은 핵심감사사항(Key Audit Matters, 이하 'KAM')을 선정하고 선정이유 및 관련 감사절차 등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해야 함
 - 감사인과 지배기구 간 KAM 관련 커뮤니케이션 횟수도 0.96 회에 불과하며, 커뮤니케이션 내용이 공시되지 않은 회사 비율도 45.1%로 높은 수준

회계오류 예방노력 및 과거오류 발견시에는 신속 정정

- (회계오류 예방·수정절차) 회사는 회계처리기준을 적정하게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며, 감사인은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공정·타당하게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회계오류를 예방할 책임이 있음
 - 감사인은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 발견 시 감사(또는 감사위원회, 이하 '감사조직')에 통보하고, 감사조직은 필요시 외부조사를 실시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변경된 감사인이 전기 재무제표에 회계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당기 감사인 및 경영진은 회계오류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하고 수정방식 등을 결정할 필요
- (자진정정 감경제도) 담당자의 착오 또는 복잡한 회계처리기준에 대한 이해부족 등 '과실'로 인하여 회계오류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반규모가 크더라도 재무제표심사 후 경조치(경고 이하) 종결
 - 위반동기가 '고의·중과실'에 해당하면 감리를 실시하고 제재를 하되, 자진정정의 경우에는 조치수준을 감경
- (상장회사의 재무제표 정정 현황) '20년 중 125개 상장회사가 감사보고서를 총 305회 정정하였으며, 이 중 재무제표 정정은 290회
 - 오류발견 또는 재감사 등에 따라 20개 상장회사의 감사의견이 변경

외부감사 보수·시간 공시 및 관리 철저

- (공시) 감사인은 감사 소요시간 등이 기재된 외부감사 실시내용을 감사보고서에 첨부
 - 사업보고서 제출 회사는 외부감사보수 및 시간을 사업보고서 본문에 계약내역과 실제수행내역을 구분하여 기재
- (모니터링) 지정확대 등에 따른 회사와 감사인간 감사보수 등 계약 관련 분쟁 방지를 위해 회사와 감사인 모두 감사시간과 보수 등에 대한 통제를 철저하게 하고 이를 충실히 기재하는 등 관리 필요
- (점검 결과)'20년도 사업보고서 기재실태 점검결과 총 2,602사 중 204사가 감사보수 및 시간을 사업보고서 본문에 누락하거나, 구분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상당수의 회사가 계약내역과 실제수행내역을 동일하게 작성하는 등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경향
 - '21년 결산시 사업보고서 본문에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감사보수 등의 합리적 산정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인 점을 고려하여 실제 수행내역을 정확하고 충실히 기재할 필요

회계처리기준 해석이 까다로운 경우 '지적사례' 및 '질의회신사례' 활용

- 회사는 과거 감리 지적 사례 및 주요 질의회신 사례를 충분히 숙지하여 결산 시 적절히 활용할 필요
 - 회사들이 결산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심사·감리결과 지적 사례를 정리하여 회계포탈에 게시
 - 주요 질의회신 사례는 회계포탈(acct.fss.or.kr) 및 회계기준원 홈페이지(www.kasb.or.kr)에 공개

자세한 내용은 [금감원 회계포탈의 원문](#)을 참고해 주세요.



Highlights of the 2021 AICPA & CIMA Conference on Current SEC and PCAOB Developments

SEC 및 PCAOB development와 관련한 연례 행사로 AICPA 및 CIMA 회의가 2021년말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 회의는 주요 이해 관계자를 모아 회계, 재무 보고, 감사 및 기타 관련 문제의 발전을 논의하고 전문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영역과 추세를 공유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합니다. COVID-19 대유행에 따른 영향은 작년 회의의 주제였으며 올해는 다환경, 사회, 거버넌스(ESG) 문제가 핵심 주제로 등장했습니다. 높은 품질의 재무 보고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의 참여 및 유지의 중요성도 자주 언급되었습니다. 또한, 전문 분야에서 DEI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성)를 강화하는 것의 중요성은 해당 주제에 참여하는 패널의 토론뿐 만 아니라 회의 전반에 걸쳐 리더들에 의해 강조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계속적으로 주요 이해 관계자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회계, 재무 보고 및 자본 조달 환경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기조연설 세션에서 SEC Acting Chief Accountant인 Paul Munter는 회의와 관련하여 발표한 성명서 이외에 다음을 추가로 언급했습니다. Munt는 높은 품질의 재무 보고를 위해 **(1) 고품질 회계 표준 설정, (2) 해당 표준의 고품질 구현 및 적용, (3) 고품질 감사**의 세 가지 요소를 설명했습니다. 발표자들은 일반적으로 SPAC과 관련된 회계 및 재무 보고의 복잡성과 함께 특수 목적 인수 회사(SPAC)의 지속적인 호황을 인지하였고, SAB Topic 1.M(SAB 99)의 지침 적용에 대한 관점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한 질적/양적 요소에 대한 편견 없는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회의 개막 세션에서 전 AICPA 의장인 Tracey Golden은 투자자와 소비자의 변화하는 기대치와 재무 결과에서 비즈니스가 주변 다른 영역에 미치는 영향으로 초점이 이동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면서 전문가가 투자자 및 기타 이해 관계자를 위한 ESG 정보의 신뢰성을 향상하고 신뢰를 구축하며 공익을 보호할 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기회를 잡고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unter는 현재 많은 상장사가 일종의 지속 가능성 보고서를 제공하고 있지만 투자자들은 보고서의 일관성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에 제공된 정보는 일반적으로 SEC 서류에 포함되지 않으며 회사에 대한 일관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비교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현재 지속 가능성 보고서를 제공하는 회사 중 3분의 1 미만이 정보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으며, 인증 수준과 유형이 일관되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Deloitte Head up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세요.



주요 회계관련 뉴스 Link

Accounting News Clips (검색기간 2022.01.01 ~ 2022.01.31)

- | | | |
|----|---|---------------------|
| 1 | 우리금융, 신요환·윤인섭 사외이사 신규 선임...자추위 구성도 완료 | 뉴스 1 (2022-01-27) |
| 2 | KB·신한·하나금융 '기후변화대응 리더기업' 등극 | 파이낸셜뉴스 (2022-01-26) |
| 3 | '기관경고' 삼성생명, 1년간 신사업 막힌다(종합) | 서울경제 (2022-01-26) |
| 4 | 금리인상기 진입, 잠재부실 현실화 가능성 대비 필요 | 더벨 (2022-01-26) |
| 5 | "굿바이, 카드 수수료"...CBDC 도입 준비하는 한국은행 | 뉴스 1 (2022-01-25) |
| 6 | 금감원 "은행 잠재부실 대비... 대손충당금 증액" 주문 | 동아일보 (2022-01-24) |
| 7 | 은행권, 디지털 혁신·ESG 경영 박차 | 세계일보 (2022-01-24) |
| 8 | 내년 새 국제회계제도 시행... 보험사 긴장 | 디지털타임스 (2022-01-23) |
| 9 | 4대 금융지주 올 당기순익 15 조 전망... 역대급 실적 또 찍나 | 파이낸셜뉴스 (2022-01-18) |
| 10 | 금융리더 76% "韓 규제, 시장 적대적...이러선 혁신 못해" | 매일경제 (2022-01-12) |



Glossary

- ASAF** : Accounting Standards Advisory Forum 회계기준자문포럼
- ASBJ** : Accounting Standards Board of Japan 일본회계기준원
- CAQ** : Center for Audit Quality 감사품질센터
- DP** : Discussion Paper 토론서
- EFRAG** : European Financial Reporting Advisory Group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
- ESMA** : The 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 유럽증권시장감독청
- FSB** : Financial Stability Board 재무안정위원회
- IASB** :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국제회계기준위원회
- IFAC**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Accountants 국제회계사연맹
- IPTF** : International Practices Task Force 국제실무전문위원회
- IFASS** : International Forum of Accounting Standard Setters 회계기준제정기구국제포럼
- IFRS AC** : IFRS Advisory Council 국제회계기준자문위원회
- IFRS IC** : IFRS Interpretations Committee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
- IPSASB** : 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Board 국제공공회계기준위원회
- ISSB** :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 ITCG** : IFRS Taxonomy Consultative Group 국제회계기준 택사노미 자문그룹
- IVSC** : International Valuation Standards Council 국제가치평가기준위원회
- IVS** : International Valuation Standards 국제가치평가기준
- SMEIG** : SME Implementation Group 중소기업회계기준 실행그룹
- TCFD** :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기후변화관련재무정보공시전문위원회
- TRWF** : Technical Readiness Working Group 기술적준비작업그룹
- WSS** : World Standard-setters 국제회계기준제정기구



조태진 Partner

Tel : 02-6676-3322
Mobile: 010-9129-2247
E-mail : tajo@deloitte.com



공선희 Partner

Tel : 02-6676-1264
Mobile: 010-2112-3417
E-mail : sgong@deloitte.com



김재현 Partner

Tel : 02-6676-1175
Mobile: 010-9414-7517
E-mail : jaekim@deloitte.com



박재철 Partner

Tel : 02-6676-1159
Mobile: 010-6267-9616
E-mail : jaepark@deloitte.com



이형남 Partner

Tel : 02-6676-1268
Mobile: 010-2707-0902
E-mail : hyunlee@deloitte.com



김현웅 Director

Tel : 02-6676-1226
Mobile: 010-4004-9206
E-mail : hyunkim@deloitte.com



김현철 Director

Tel : 02-6676-3067
Mobile: 010-2204-5466
E-mail : hyunchkim@deloitte.com



최아름 Senior Manager

Tel : 02-6676-1278
Mobile: 010-8764-3260
E-mail : ahchoi@deloitte.com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